

광양, 미래 산업 '이차전지' 인재 양성 본격화

LOCAL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비 4억원 확보...취업준비생·구직자 등 전문교육 실시

광양시가 지역 미래전략 산업이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이차전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재 양성 전문교육에 나선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인력양성)' 공

모에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기회발전특구 내 이차전지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기업 지원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광양 이차전

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국비 4억원, 지방비 2억원 등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차전지 산업 관련 취업준비생, 구직자, 재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운영은 광양관광인력양성사업단,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 기관이 도맡아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이차전지 소재·공정, 분석 장비 활용, 생산설비 관리 등 기업이 요구

하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며, 현장실습과 개별 컨설팅을 통해 취업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인력 양성 세미나 개최, 기업 협의회 운영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전남도와 협력해

기회발전특구 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울촌1산단, 세풍산단, 동호안 국가산단 일원 약 132만2314㎡(40만평)을 해당 특구로 지정받았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 감면, 규제 완화, 행정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시는 이를 적극 활용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곡성,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연 2회 이상 홍보·인센티브 지급

곡성군은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 깨끗한 가게 운영, 친절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우수 업소를 말한다. 군은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22개소로 확대 지정하고자 인센티브 신청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인근 상권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하게 판매하는 품목이 1개 이상 있어야 하며, 매장이나 화장실의 위생·청결 등 종합평가에서 40점 이상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소모품구입, 종량제봉투 등 업소당 연 85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군은 올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주간'을 연 2회 이상 운영해 착한가격업소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주의 신청 또는 추천을 통해 선발되며 연중 언제든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 받은 사업장도 신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상대 군수는 "급격한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힘쓰는 소상공인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함평나비대축제 성공기원 '나비 날리기'

함평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나비날리기 행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상의 함평군수와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모정환 전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8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키운 호랑나비와 배추흰나비 등 2025마리를 날려 보냈다.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를 주제로 '황박이와 함께하는 함평 나비 세상'을 주제로 12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야외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만나볼 수 있으며, 소원을 빌며 직접 나비를 날려 보내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

황금박쥐가 있는 함평추억공작소와 다육식물관, 나비곤충생태관, 자연생태관, 아열대농업관, 수생식물관, 함평군립미술관, VR체험관 등이 있으며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이상의 군수는 "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에게 특별하고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관광객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최일명 기자



함평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나비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장성, 전남체전 화려한 무대 선보인다

정동원·김연자·드론쇼 등 콘텐츠 풍성

장성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64회 전남체육대회 참여와 관심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4월 18일 개최식 식전 행사로는 장성군이 배출한 국악인 송경매 대금소리연구소장과 전남무형문화재 김은숙 가야금병창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해병대 군악대와 의장대의 절도 있는 무대도 이어진다.

개회식 이후에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아모르파티'로 유명한 김연자와 정동원, 손호영, 김태우, 린, 김태연 등의 무대가 체전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축하공연이 끝나면 '멀티미디어 드론쇼'가 환상적인 불거리를 선사한다.



300대의 드론이 밤하늘에 날아올라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19일에는 전남체전, 전남장애인체전과 '장성방문의 해'의 성공을 기원하는 '성장장성락페스티벌'이 장성군청 옆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장성지역 청소년 밴드, 장성고등학교 출신 김예지씨가 킥을 맡고 있는 '카디', 올해로 활동 30주년을 맞이한 한국 락 음악의 중심인 도현밴드가 신나는 공연을 선보인다.

4월 30일 열리는 제3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선 '현역기원2' 우승자 박서진, 광영광, 성민지의 축하공연이 예정됐다. 전남체전, 전남장애인체전 개회식과 축하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장성=이병형 기자

창작 웹툰 동남아 연재...순천시-웹툰을 '맞손'

문화콘텐츠 산업 상호 협력 아카데미 운영...인재 양성

순천시는 최근 시청에서 글로벌 웹툰 플랫폼 개발 및 공급 기업 '웹툰을'과 문화콘텐츠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웹툰을은 웹툰·웹소설 연재 플랫폼과 웹툰 작가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지난달 순천시로 본사 이전을 완료하고 베트남 콘텐츠 국영기업(VTC)과 협력해 K-웹툰 수출 플랫폼, 아카데미 운영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웹툰을 최성기 대표, 류제영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해 순천시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 웹툰 아카데미 사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지역



순천시는 최근 시청에서 글로벌 웹툰 플랫폼 개발 및 공급 기업 '웹툰을'과 문화콘텐츠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 교육기관 및 문화콘텐츠 기업의 해외 교류와 이해 증진 등 순천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도약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웹툰을이 보유한 웹툰 수출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내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조성될 전망이다.

순천=박철성 기자 2556pk@gwangnam.co.kr

담양,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초등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

담양군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11월 29일까지 신청 기간을 통해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6월 27일까지는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담양군의 초등학교 입학생 주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제출 후 지급 요건이 확인되면 지역화폐로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입학축하금이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양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적극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